

제공일자	2013. 11. 4(월)	담당자	조재린 연구위원	
홍보담당	김세환 부장(02-3775-9051)	연락처	02-3775-9034 010-9524-0422	총3매

제목 : 보험연구원 『보험회사 재무건전성 2020』 정책세미나 개최

- 보험연구원(원장 강호) 조재린 연구위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RBC 강화 플랜의 불확실성 증가를 지적하고, 2018년 IFRS4 시행에 대비한 “先 부채적정성평가 강화, 後 RBC 강화”라는 내용으로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함.
- 로드맵은 보험부채 시가평가의 의무적용이 예상되는 2018년까지 부채적정성평가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, RBC 규제는 “정성평가-정량평가” 순으로 시행 순서를 조정할 것을 제안
- 또한, 보험회사가 재무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충분한 보험료를 설정할 수 있도록 보험료 자율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

□ 보험연구원은 5일(화)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연회실에서 “보험회사 재무건전성 2020 :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의 현재와 미래”란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음.

- 이번 세미나는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규제 강화가 RBC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면서, 이에 따라 보험산업 내에 증가하고 있는 규제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음.
- 이날 첫 주제발표자인 RGA재보험의 Jason Zhang 선임계리사는 보험회사 재무건전성규제에 대한 국제 추세는 위기상황에서도 잘 작동하는 건전성 규제체계 정비에 모아지고 있음을 지적함.

- 다음 주제발표자인 조재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보험회사의 RBC규제 강화 플랜과 관련하여 첫째, 국제기준 준수 의무 여부와 둘째, 국내 보험산업에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가 미칠 영향분석에 근거하여 종합적인 재무건전성규제 로드맵을 제시함.
- 마지막으로 오창수 교수(한양대)의 사회로 금융감독당국자와 보험회사 위험관리담당임원(CRO)과 재무담당임원(CFO) 등이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향후 로드맵에 대하여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음.

보험회사 재무건전성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 제시가 필요

- 현재 금융감독당국은 보험회사 자본 강화와 더불어 보험료 억제, 부채적정성평가 강화안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음.
 - 금융감독당국은 2013년부터 보험회사의 요구자본 산출에 적용할 신뢰 수준을 현행 95%에서 99%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, 최근에는 준비금 시가평가에 대비하는 부채적정성평가 강화안을 발표함.
 - 또한, 저금리에 따라 표준이율이 인하되었음에도 그에 따른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가격규제가 동시에 시행되고 있음.
- 그러나 현행 규제 강화 플랜이 자본, 준비금, 보험료 규제 간 상호 영향과 국제적인 추세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
 - 이에 재무건전성 규제의 국제적인 추세와 규제가 보험회사에 미칠 영향 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규제 로드맵을 제시하고,
 - 재무건전성규제 강화는 보험산업의 가격자유화와 시장경쟁 촉진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함이 강조됨.

자본규제에 대한 국제 추세는 위험 세분화와 정성평가 우선

- 유럽과 미국 재무건전성규제 강화의 공통분모는 정량평가의 위험 세분화와 정량으로 파악되지 않는 위험에 대한 정성평가의 강화에 있음.

- 자본규제 강화와 관련하여 미국과 유럽은 아직 이견이 많지만, 최근 미국에서도 **RBC의 위험세분화와 전사적 위험관리를 유인하는 정성평가 강화가 추진되고 있음.**
- 이에 따라 미국은 **2015년부터 정성평가를 시행하기로 하였고, 유럽은 Solvency II의 시행 시기를 2016년 이후로 예정하고 상황에 따라 정성평가를 우선 시행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음.**
- 한편, 보험회사 준비금 시가평가에 관한 회계규제의 시행은 **2018년부터 적용될 것이 유력하며, 이때 국내 보험회사는 의무적으로 준비금을 지금보다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.**

보험회사 대응은 자본규제 대응보다 회계규제 대응이 더 시급

- 전체 재무건전성 규제의 틀 안에서 자본규제와 회계규제의 강화 시기와 강화 내용을 조율하지 않으면 규제에 대응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음.
- 특히, 준비금 시가평가의 영향을 크게 받는 생명보험회사는 당기순익을 전액 유보해야 2018년 회계규제 강화에 대응할 수 있는데 RBC 강화가 진행될 경우 규제 대응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.
- 따라서 先 부채적정성평가의 단계적 강화, 후 **RBC 자본규제 강화로 진행하고, 자본규제는 정성평가-정량평가 순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**
- 강호 보험연구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"최근 일련의 규제 강화는 금융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것이므로 보험회사도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" 것을 강조하고 "다만, 규제가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감독정책 간 일관성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"고 강조함.

<별첨> 정책세미나 발표자료 각 1부. 끝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kiri.or.kr>